

남성수용자,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적 인식, 그리고 그 영향의 검증연구*

김은영**

〈요 약〉

이 연구는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이들의 교정시설에서의 적응문제, 특히 스트레스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21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연구 가설 4개를 세워 각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의 수행결과, 남성수용자들의 여성교도관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남성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의 수준에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수용자들의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들의 수용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들을 여성으로 인식하기보다 전문적인 교정직원의 일원으로서 남녀의 구별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과와 논의에서 더욱 논의되었다.

주제어 : 남자수용자, 여성교정직원, 성고정관념적 인식, 스트레스, 교정직원에 대한 태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5518)

**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분석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
|--|

I. 서 론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 또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은 이제 이 사회에서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통적으로 남성지배적인 영역이었던 분야인 경영, 이공, 군인, 그리고 체육 등의 분야로의 여성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는 형사사법시스템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형사사법분야의 중요 기관 중 하나인 교정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과 활약은 그 다른 분야보다 더 더디고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교정공무원으로서 험악한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강한 체력과 담력, 과중한 업무량과 훈련량, 그리고 야근 등 어려운 근무조건들이 여성의 본질적 특징이 이 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의 성격이 여성적 특성과 잘 맞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들이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교정직에서의 여성비율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교정직에서의 업무 부적합성에 대한 설명의 배경에는 여성은 교정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성별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교정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직원들에 대해서 이들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여성의 정신적 연약함이 교정기관에서의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믿음, 여성이라는 존재가 내포하는 성적인 특성이 남성수형자들과 동료인 남성교정직원들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염려들, 그리고 남성수형자들의 사생활의 침해 등의 일반적인 고정관념들을 의미한다(김은영·윤옥경, 2015; Jurk, 1985).

이처럼 여성이 교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대하고 교정계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왔고 교정기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그들이 교정기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능력의 입증과 자질의 입증을 스스로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아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형사사법기관들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여성들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여성교도관의 업무능력평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능력평가를 교정업무를 얼마나 남성교도관과 유사하게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이수정·윤옥경, 2006; 이현희, 2007; 정우열, 2007). 그러나 이러한 남자교정공무원의 직무활동을 기준으로 여성 직원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여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Zimmer, 1987). 예를 들면, 남성 교정공무원이 신체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교도관은 교정기관의 환경과 분위기에서 수형자와 교도관들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일상화하는 영향을 끼쳐 발생할 수도 있는 폭력과 통제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업무의 효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Carlen, 1998; Liebling & Price, 2001). 이는 여성의 교정시설에의 존재와 업무스타일이 교정시설 내의 역동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효과가 남성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교도관의 역량과 교정기관 내의 수형자와 동료 남성교도관과의 사회적 역할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재조명되어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법에 의한 여성교도관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연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여성의 역량과 남성교도소에서 여성교도관으

로서의 근무능력을 수행자들로부터 받는 평가 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더 나아가 남성수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나 이러한 태도가 교정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수용자들의 교도소 내의 생활과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교정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존재가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성교정공무원들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교정직원들의 성공적 교정직의 진출을 막고 있는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이 잘못된 신화(myth)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사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수행되어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남성수형자들의 여성교도관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남성수용자들의 교정시설에서의 생활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연구에서 남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성고정관념적인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성수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폭력적이고 남성지배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남성수형자가 여성교도관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남성-여성의 구도로 여성교도관을 대하는 지 아니면 교도관의 성별에 관계없이 직원 대 수행자의 관계로 인식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교정직원들의 교정기관에서의 성공을 의심하도록 하는 성고정관념의 영향이 남성수용자들 사이 이같은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만연되어있다면,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이들의 수용생활과 전체 교정직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분석

1.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인식과 수용 생활의 영향

교정시설에서의 여성의 업무능력과 업무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교정공무원들이 직접 대면하고 통제하는 대상인 교도소 수형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과 남성 교도관들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와 관계 및 수형자들의 교도관들에 대한 행동과 평가의 차이에 주목한다(Boyd & Grant, 2005; Jenne & Kersting, 1998; Liebling과 Price, 2001; Rowan, 1996; Szockyj, 1989; Zupan, 1986). 먼저, 선행연구들은 수형자들을 대하는 태도, 교도소 내의 규율과 절차에 대한 준수, 그리고 폭력적이지 않은 소소한 형태의 교도소 내 사건 또는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여성과 남성교도관들의 업무수행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Jenne & Kersting, 1998; Rowan, 1996; Zupan, 1986). 오히려 일부 연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형자들과 교도소의 상급관리자들은 여성교도관들이 남성교도관들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고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zockyj, 1989). Szockyj(1989)는 수형자와 관리직에 있는 교정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여성교도관들이 남성교도관들보다 수형자들의 필요에 대해 보다 존중하는 태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형자들은 이와 같은 여성교도관의 소통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영·윤옥경, 2015).

또한 Boyd와 Grant(2005)은 교정공무원들의 수형자들의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역량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수형자들이 여성과 남성교도관들 간의 전반적 업무의 역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수형자들은 오히려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여성교도관들이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Liebling과 Price(2001)의 연구 역시 여성교도관의 수형자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교정공무원들과 수형자들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시키며 이로 인해 수형자들의 행동과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맺는 관계의 질에도 개선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여성교도관의 영향은 교도소내의 문제발생, 갈등, 자살 그리고 폭력행위 등의 문제행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교정사고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김은영·윤옥경, 2015; Rowan, 1996).

여성교도관이 교정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교도관과 수형자 간의 권력관계의 형성에 있어 힘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점차로 재할을 목표로 하는 수형자 통제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Jurik(1985)는 시설의 안전과 보수수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교도관들에 비해서 여성교도관들은 보다 서비스 중심적이고, 수형자 재할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Walters(1992)는 교도소에서 남성교도관들은 여성교도관들에 비해 수형자의 재할보다 이들의 구금확보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윤옥경, 2015).

교도관에 대한 수형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수형자들이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여성교도관들에 대해 보다 보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Kissel & Ketsampes, 1980). Kissel과 Ketsampes(1980)의 연구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여성교도관들에 대해서는 언어적 폭력을 더 많이 가하는 반면 신체적인 폭력은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훨씬 그 빈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Petersen(1982)의 연구는 단지 14%의 수형자들만이 남성교도관들보다 여성교도관들에게 신체적 위협을 더 많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교도관과 수형자들 간의 위협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65%의 수형자들은 남성교도관들보다는 여성교도관들을 더 보호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다. Zimmer(1982)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 수형자들은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여성교도관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남성수형자들이 여성교도관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immer의 연구는 여성교도관들이 더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할 경우, 수형자들이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여성교도관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려하고 하며, 여성교도관들의 존재에 더 수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Zimmer, 1982: 179). 마지막으로 Petersen(1982)은 여성교도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남성수형자들은 여성교도관들이 교도소의 전체 분위기의 억제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교도관들과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 즉, 여성교도관들의 존재 자체가 억압적인 교도소의 분위기에 교도소 밖

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김은영·윤옥경, 2015; Petersen, 1982: 432).

이러한 발견은 여성교도관들이 남성수형자들에게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여성교도관들이 수형자들과의 대치상황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의 차이와 수형자들이 진정한 남자라면 여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마초적 생각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교도관들의 친절함과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원활한 상호작용기술이 여성교도관에 대한 수형자들의 보다 개선된 행동을 불러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orne, 1985; Zimmer, 1985).

이와 동시에 선행연구들은 일부 남성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여성교도관들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Horne, 1985; Petersen, 1982; Zimmer, 1985). Petersen(1982)의 연구는 여성교도관들의 남성교도소에서의 근무를 반대하는 남성수형자들은 여성교도관들의 존재 자체가 가져다주는 교도소 밖의 일반사회의 분위기가 남자수형자들 자신들의 성적 박탈(sexual deprivation)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볼 수는 있으나 만질 수는 없는’ 여성교도관들을 보면서 좌절감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교도관들의 존재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은영·윤옥경, 2015).

그리고 남성수형자들이 여성교도관의 남성교도소에서의 근무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사생활보호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남성수형자들은 여성교도관들이 자신들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모습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 또는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교도관이 근무하는 남성교도소의 수형자들 중 적지 않은 수는 지속적으로 여성교도관에 의한 사생활침해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며, 그 중 일부는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로서의 사생활보호 침해에 대해 교정당국에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고하였다(김은영·윤옥경, 2015).

이러한 수형자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Horne(1985)는 남성수형자들의 법적소송이나 반대의 태도의 진정한 속내는 바로 여성에게 명령을 받고 그들의 통제아래 있는 상황에 대한 남성수형자들의 불평과 불만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성수형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성에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의 남성성에 대한 도전 또는 치욕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에 대해 Horne는 일부의 남성수형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수형자들은 교도관들이 자신들을 통제하고 있는 존재일 뿐 여성인지 또는 남성인지 여부는 실제로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Zimmer(1982)는 여성교도관과 남성수형자간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 고정관념의 차이라고 제시하였다. Zimmer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교도관들이 직무의 능력에 차이가 없을 때라도 남성수형자들은 여성교도관들을 남성교도관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대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전 사회를 걸쳐 가장 중요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는 다른 사회적 규제와 관점들이 모두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도 상호 반대의 성별의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교도관은 교도소 내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남성수형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성차이가 내포하는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Zimmer, 1982: 178).

2. 남자수용자들의 교정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수용자들의 적응문제

남자수용자들의 교정기관에 수용되고 나면, 수용된 기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이들의 적응문제(스트레스, 자해 등)와 폭력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iggs, Sundt, & Castellano, 2003; McCorkle et al., 1995; Trammell & Rundle, 2015). 이러한 교도소의 수용특성은 남성중심적인 폭력적 문화를 가진 수용환경, 교도소의 수용자들의 위험등급에 따른 물리적 안전을 위한 제제수위의 사용정도, 그리고 교도소 시설의 물리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중, 수용자들의 폭력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기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교정직원들과 수용자들의 관계이다. 선행연구들은 수용자들이 교정직원들의 시설 내에서의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교정직원들의 스트레스, 교정직원들이 수용자들을 다루는 태도 및 계호의 사용방법 등이 수용자들의 교도소내의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Bolino & Turnley, 2005; Cheeseman, Kim, Lambert, & Hogan, 2011; Colvin, 2007; McCorkle, Miethe, & Drass, 1995; Trammell & Rundle, 2015).

예를 들어, Cheeseman과 그의 동료들은(2011) 교정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직

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낮은 직업만족도는 특히 이들이 수용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용자들의 재사회화보다는 통제형식의 관리에 더 집중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Colvin(2007)의 연구는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교정직원이 강압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오히려 수용자들과 교정직원간의 분열을 초래하여 교정직원들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 중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교정직원이 수용자들을 다루는 태도와 방식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용자의 인식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Trammell & Rundle, 2015). 이는 교정직원들과 수용자들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수용자의 측면에서 교정직원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업무관련 행동과 태도를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 같은 관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교도소라는 시스템이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 내의 갈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교정직원들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Trammell & Rundle, 2015).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자신들만의 규칙(inmates code)’과 같은 룰을 따라서 교정직원들과의 장시간 접촉이나 오랜 기간의 협력을 꺼린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도소 내의 권력은 교정직원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이들은 교정직원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교정직원들과 우호적인 태도나 관계를 취하는 것을 개인에 따라 선택적으로 택하게 되지만, 이들의 적대적 태도나 우호적인 태도의 여부를 떠나 모든 수용자들은 언제나 교정직원들의 특성이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개별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자들의 교정직원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해석은 이들의 생활과 적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Trammell과 Rundle(2015)의 심층면접연구는 수용자들이 직원들 간의 언어적, 그리고 물리적 갈등이나 다툼을 목격하는 가운데 이들이 교정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받는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정직원들이 수용자들을 주의 깊게 통제하지 않거나 수용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이러한 인식이 수용자들의 문제행동이나

수용자와 교정직원들 간의 갈등, 그리고 수용자들의 스트레스와 같은 적응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수용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바로 다른 관점에서는 교정직원들의 수용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헌신도 그리고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정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와 직업적합성에 관한 평가들은 수용자들의 교정직원에 대한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적응문제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정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용자들이 교정직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수용자가 교정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업무관련 행위나 일반적인 교정시설 내의 활동과 태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수행되지 못하였고, 국외에서도 매우 소수의 연구들만이 수행되어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3. 이 연구의 목표 및 연구가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발견들과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남자수용자들에게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존재가 남자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업무와 태도 등으로 인해 남자수용자들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 성고정관념적 인식이나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이 이들 남자수용자들의 교도소 내의 적응의 일부인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여성 교정직원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 이외에도 남녀 전체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남자수용자들의 적응문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지 또는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교정시설 내의 남성교정직원이나 남자수용자들 간의 신화인지 아니면 영향력있는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과 직업부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남자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여성교정공무원의 여성성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남자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남녀 전체 교정공무원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남자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이 연구는 여성교도관의 업무능력 및 역량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교정본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서 2015년 8월 한 달 동안 전국 4개 교정청(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산하의 1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있는 남자수용자들 240명을 표집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집할당한 후, 각 교도소의 남자수용자들 중 연구에 자원하여 참여한 남자수용자들은 모두 235명으로 응답이 부실한 16명의 설문결과를 제외하고 총 219명의 설문조사결과가 최종연구에 사용되었다.

2. 변수

(1) 종속변수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남자수용자들의 적응문제의 한 가지 요인으로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 수준을 또 다른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최근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4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 응답(1=대단히 많이 느낀다 ~ 4=거의 느끼지 않는다)을 측정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이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이 변수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질문문항으로서 남성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가질 수 있는 성고정관념적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같은 여성교정직원(교도소 내의 여성상담사 및 간호사 포함)에 대한 문항을 읽고 남자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4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1=전혀 그렇지 않다 ~ 4=항상 그렇다) 응답지에 답하도록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설문문의 응답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인식이 다음의 세 요인의 하부요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밝혀졌다(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 여성교정직원의 폭력대응능력/직업적합성에 대한 인식, 여성교정직원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은 각각 개별적인 종합변수로 측정되어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로 사용되었다.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 이 변수는 9가지 문항 중 모두 5개 문항을 하나의 종합변수화 하여 사용되었다. 이 변수에 포함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낀다’, ‘여자 교정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것은 남자교정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 ‘여자 교정직원들은 성적 농담을 하는 남자 수형자들의 놀림거리가 된다’, ‘화장실 사용이나 취침 등의 내 개인적인 생활을 여자에게 들키는 것 같아 수형생활이 불편하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자 교도관들과 교제하는 상상을 한다’. 이 변수들의 신뢰도는 .74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성교정직원의 폭력대응능력/직업적합성에 대한 인식. 이 변수는 9문항 다음의 중 2항으로 구성된 독립변수로서 두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종합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도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다”, 그리고 ‘수형자들 간의 싸움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남자 교정직원들보다 여자 교정직원들의 대응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변수들의 신뢰도는 .68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여성교정직원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 이 변수는 남자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

원들의 여성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다음의 2가지 질문들을 하나의 변수화하였다. ‘여자 교정직원들은 나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더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거 같다’, 그리고 ‘여자 교정직원들이 교도소 내의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해준다’. 이 변수들의 신뢰도는 .79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교정직원에 대한 인식. 이 연구의 또 다른 주요한 독립변수는 바로 남녀 전체 교정직원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인식이다. 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24 문항의 질문문항들은 Boyd와 Grant(2005)의 연구에서 교정직원의 업무능력과 태도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도구로 사용된 문항을 재사용하였다. 이 문항의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에게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와 논쟁이나 말다툼에 말려들지 않는 능력이 있다,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 그리고 ‘수형자에게 물리적 계호를 사용하려고 애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연구에 참여한 남성수용자들이 앞선 질문문항들에 대해 5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1=전혀 그렇지 않다 ~ 4=항상 그렇다)에 답한 응답내용을 종합 변수화 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그 외에 개인의 통제변수로서 **나이**, **교육정도**(1=초등학교 ~4 =대학교 이상(중퇴 포함)), **남은형량(개월수)** **입소 전 가족월수입**(1=1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종교활동의 열심정도**(1=전혀 참가하지 않는다 ~ 5=거의 매주 참가한다), 남자수용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한 **사회적 관계**(명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9=매우 만족한다)의 변수들이 연구의 분석모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통제변수의 사용은 다양한 계량분석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윤민우, 2014).

3. 연구분석방법

연구분석을 위해 연구에 참여한 남자수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와 남녀 전체 교정직원 및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이 수행되고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설문에 참가한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각 문항별 기술적 분석과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독립변수들을 만들었다 <표 2>. 이어서 연구에서 선별되어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3>.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검증 가설인 남성수용자들의 여성에 대한 성적고정관념이 이들의 교정생활 중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인식의 영향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기법(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이 적용되었다<표 4>.

IV.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에 참여한 남자수용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들의 평균 나이는 40세로서 가장 나이가 어린 수용자는 21세였고 가장 고령의 수용자는 69세였다. 이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였다. 수용자들의 남은 형량은 평균적으로 239개월이었다. 남자수용자들의 입소 전 평균 가족월수입은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소득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일반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종교활동은 때때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수용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균적인 대화상대는 약 5명 정도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고한 현재의 스트레스수준은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평균적이었다.

이어서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선,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가설 1에서 예견한 바와 달리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교정직원의 능력과 여성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남자수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전혀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여성교정직원의 폭력대응능력이나 직업적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때때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여성교정직원의 교정활동적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1〉 남자수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의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변수	평균(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	40.18	11.72	21	69
교육수준	3.25	.72	1	4
남은형량(개월수)	239.31	1624.06	3	11988
입소 전 가족 월수입	2.93	1.56	1	5
종교활동의 열심정도	2.62	1.55	1	5
사회적관계	5.22	6.05	0	57
생활만족도	5.05	2.27	0	10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적고정관념적 인식	1.53	.60	1	4
여성교정직원의 폭력대응능력/직업적합성에 대한 인식	2.15	.96	1	5
여성교정직원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	2.67	1.16	1	5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	3.44	.57	1	5
남자수용자의 스트레스수준	2.55	.84	1	4

〈표 2〉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적고정관념적 인식의 기술적분석 및 요인분석결과

요인 분류	설문항목	요인 부하량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	여자 교정직원들은 나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더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거 같다(평균 =2.57; 전혀그렇지 않다 = 29.2%)	.89 이상
	여자 교정직원들이 교도소 내의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해준다(평균 =24.7; 전혀그렇지 않다 = 24.7%)	
폭력대응능력/ 직업적합성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면에서 교도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다.(평균 =44%)	.81 이상
	수형자들 간의 싸움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남자 교정직원들보다 여자 교정직원들의 대응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평균 =28%).	
성고정관념적 인식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낀다(평균 =1.48; 전혀그렇지 않다 = 62.8%)	.61 이상
	여자 교정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것은 남자교정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평균 =1.62; 전혀그렇지 않다 = 59.5%).	
	여자 교정직원들은 성적 농담을 하는 남자 수형자들의 놀림거리가 된다(평균 =1.71; 전혀그렇지 않다 = 59.2%).	
	화장실 사용이나 취침 등의 내 개인적인 생활을 여자에게 들키는 것 같아 수형생활이 불편하다(평균 =1.55; 전혀그렇지 않다 = 67.9%).	
	내가 만나는 여자 교도관들과 교제하는 상상을 한다(평균 =1.38; 전혀그렇지 않다 = 75.5%).	

그러나 동시에 여성교정직원의 여성성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리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남지수용자들은 여성교정직원들이 지니는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때때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남지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을 대면할 때 특별히 여성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지수용자들이 그들의 수용생활 가운데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해 편중된 성고정관념적 시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여성직원을 여성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수 간 상관분석결과

<표 3>은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모든 독립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분석 및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그리고 남녀전체 교정 직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세 가지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종속변수와 이변량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3〉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이변량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10	1										
3	.10	-.20**	1									
4	-.09	.13*	.03	1								
5	-.05	-.09	.30**	.06	1							
6	-.02	.07	.10	.05	-.00	1						
7	.15*	-.09	.00	.04	-.04	.13*	1					
8	.35**	-.12	.13*	-.10	.07	.18**	.22**	1				
9	-.11	.19**	-.15*	-.01	-.00	-.01	-.06	-.19**	1			
10	-.05	-.04	-.20**	-.01	.00	-.10	-.08	-.08	.35**	1		
11	-.00	.06	.00	.00	.07	.15*	-.12	.04	.31**	.15*	1	
12	.30**	-.02	.07	-.06	-.10	.07	.09	.25**	-.23**	-.14	.05	1

* P < 0,05

이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변수들의 상관관계계수가 모두 0.4 이하로서 회귀분석을 통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문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회귀분석 과정에서 수행된 다중공선성분석의 IVF 지수는 모두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오류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3.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표 4>는 수용자들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과 남녀전체 교정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 1에서는 연구 가설의 2와 3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의 통제변수들로 포함된 종교생활의 열심정도(Beta=-.16*), 사회적 관계(Beta=.15*), 그리고 생활만족도(Beta=.36***)만이 수용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가

<표 4> 수용자의 스트레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분0석

종속변수: 남자수용자의 스트레스 수준	Model 1			Model 2		
	b	S.E	Beta	b	S.E	Beta
나이	-.00	.00	-.01	-.00	.00	-.02
교육수준	.08	.09	.07	.07	.08	.06
남은형량(개월수)	.00	.00	-.01	.00	.00	-.01
수입	-.06	.04	-.10	-.04	.04	-.08
종교활동의 열심정도	-.09	.04	-.16*	-.09	.04	-.18*
사회적 관계	.02	.01	.15*	.01	.01	.14 [†]
생활만족도	.13	.02	.36***	.12	.02	.33***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	-.07	.12	-.05	-.01	.11	-.01
여성교정직원의 폭력대응능력/직업적합성에 대한 인식	-.04	.07	-.05	-.02	.06	-.03
여성교정직원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	.00	.05	.00	-.02	.05	-.03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일반적 인식				.28	.11	.19*
R-square	.20			.23		
F값	4.32***			4.69***		

†P<0.1, *P<0.05, **P<0.01, ***P<0.001

설 1과 2가 예측한 것과 달리 주요 독립변수인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나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이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위험요인이 되지도 낮추는 보호요인이 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모델 1의 연구의 결과는 해석하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견이다. 이에 반해서 수용자들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범죄성을 낮추거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에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발견은 예상과 다른 발견일 수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수용생활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는지 여부가 연구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모델 2는 가설 4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새롭게 모델에 포함된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결과는 가설 4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수용자들의 일반적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Beta=.19*). 이러한 발견은 남자수용자들의 교도소 내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교정직원들의 여성적 특수성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전체 교정직원들의 업무능력,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 남자수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교정직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 영향 받지 않으며, 즉, 여자교정공무원들을 여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집단적 의미의 교정직원들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외에 남자수용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앞선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종교활동의 열심정도(Beta=-.18*), 생활만족도(Beta=.33***)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Beta=.14[†])은 통계적 유의미성이나 회귀계수 모두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이들 남자수용자들의 교도소 적응의 문제의 하나인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여성의 직무능력과 업무적합성에 대한 적절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여성들의 교정직에의 진출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의 문제들에 대해 동료 남자교정직원들이 지니는 태도나 인식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존재하였지만, 남자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에 대해 지니는 인식이나 태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검증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문하였고, 국외에서도 드물게 수행되어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간극과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 연구는 국내의 남자수용자 245명을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자에 의해 세워진 네 가지의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수용자들의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교정직원의 능력과 여성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적으로 ‘전혀그렇지 않다’와 여성교정직원의 폭력대응능력이나 직업적합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때때로 그렇다’로 응답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여성교정직원의 여성성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리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때때로 그렇다’의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은 남자수용자들이 그들의 수용생활가운데 여성교정직원에 대해 편중된 성고정관념적 시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여성직원을 여성으로서 인식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남자수용자들이 지니고 있는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성고정관념과 직업부적합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남자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의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성교정직원의 여성으로서의 특성과 존재가 남성수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즉, 이전까지 여성교정직원들

의 교정직에서의 적합성을 논의할 때, 여성들이 남자수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사실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고정관념이 높은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화이거나 그들의 성고정관념적 편견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서 여성교정직원의 여성성이 남자수용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검증은 시도한 세 번째 연구가설의 분석결과, 이 연구 남성수용자들의 여성교정공무원의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수준과 이들 남자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의 수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성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인 소통이나, 관심, 배려 등의 측면이 예상하였던 것에 비해 남자수용자들에게 통계적 수준의 유의미성을 가지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교정직원의 업무와 존재가 남자수용자들에게 일부 제한적인 국내의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을 앞선 가설 2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즉, 실제 남자수용자들의 사동관리를 하지 않는 국내의 여성교정직원들의 역할의 제한이 이들의 남자수용자들에 대한 영향력에도 제한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설 2과 3의 결과는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남자수용자들의 사동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여성교정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검증주제인 가설 4의 분석결과, 남자수용자들의 남녀 전체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남자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의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남자수용자들의 교도소 내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해 인식하는 성고정관념적 인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바로 남녀모두의 교정직원들 전체에 대해 남주수용자들이 인식하는 부분과 그들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자수용자들은 교정직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해석을 성별에 따라 달리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자수용자들에게 여자교정공무원들이 여성으로서 인식된다고 보다는 전체 교정직원들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통제변인들 중 남자수용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밝

혀진 종교활동의 열심정도와 생활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남자수용자들의 원만한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에게 생활에서의 만족감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점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종교활동의 열심정도가 남자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은 수용자들의 수용기간 내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인식되고 경험적으로도 밝혀져 왔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발견과는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종교활동이 더 심화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 죄책감 등의 감정으로 인해 수용생활 가운데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단순히 잦은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관련 프로그램이 교정현장에서 중요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는 국내의 교정현실을 고려하면, 이 외의 해석을 위해서 앞으로의 선행연구에서 종교가 국내 수용자들의 생활과 스트레스 그리고 문제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더 이해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교정직에의 업무 부적합성에 대한 설명의 배경의 하나인 성별 고정관념은 남자수용자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단지 신화나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여성교정공무원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남자수용자들 사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남자수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정기관 내에서의 여성교정직원들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때, 남자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검증연구에서 여성교정직원들이 남녀의 구분이 없는 전문적인 교정직원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교정직 진출이 더욱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남자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공헌점이 있다. 으로는 데 그 공헌성이 있다. 특히, 수용자들에 대한 일반적 교정기관의 목표가 응보에서 재사회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에 대

한 통제와 처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관련해서 여성교정직원들의 업무능력의 평가나 이들의 업무영역의 확대 등에 대한 거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성교정공무원의 여성성이 교정기관에서 미치는 영향의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기적 절절성 역시 중요한 공헌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있는데, 이는 연구에 참여한 남자수용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자수용자들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남자수용자 뿐만 아니라 여자수용자들의 인식과 이해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부분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국내의 연구환경에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이 연구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선행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측면의 여성교정직원에 대한 성고정관념 뿐만 아니라 남자교정직원에 대한 여자수용자들의 고정관념 등도 함께 포함되어 보다 전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은영·윤옥경. (2015). 교정의 미래와 여성교도관의 역할: 교정조직의 성고정관념 수준과 여성교도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65호: 게재예정.
- 이수정·윤옥경 (2006). 교정공무원의 폭행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교정연구*, 제 31호:89-116.
- 이현희. (2007).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요인과 국내 시장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13호: 383~402
- 윤민우. (2014).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31호: 157~185.
- 정우열. (2007).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423~450.

2. 국외문헌

- Bolino, M. C., & Turnley, W. H. (2005). The personal costs of citizenship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initiative and role overload, job stres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740-748.
- Boyd, E., & Grant, T. (2005). Is gender a factor in perceived prison officer competence? Male prisoner's perceptions in an English dispersal prison.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5:65-74.
- Briggs, C. S., Sundt, J. L., & Castellano, T. C. (2003). The effect of supermaximum security pris.
- Campbell, A., & Muncer, S. (1987). Models of anger and aggression in the social talk of men and wome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17: 489-511.
- Carlen, P (1998). Men working in women's prisons. *Prison Service Journal* 117:35-38.
- Cheeseman, K. A., Kim, B., Lambert, E. G., & Hogan, N. L. (2011). Correctional officer perceptions of inmates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rime & Justice*, 34, 81-102.
- Colvin, M. (2007). Applying differential coercion and social support theory to prison organizations: The case of the penitentiary of New Mexico. *The Prison Journal*, 87, 367-387.
- Horne, P. (1985).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Federal Probation*. 49:46-54.

- Jenne, D.L., & Kersting, R.C. (1996). Aggression and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male prisons. *Prison Journal* 76:32-35.
- Jurik, N.C. (1985) An officer and a lady: Organizational barriers to women working as correctional officers in men's prisons. *Social Problems*, 32:375-388.
- Kissell, P., & Katasampes, P. (1980). The impact of women corrections officers on the functioning of institutions housing males inmates. *Journal of Offender Counselling Services and Rehabilitation*. 4: 213-231.
- Liebling, A. & Price, D. (2001). *The Prison Officer*, Winchester: Waterside Press.
- McCorkle, R. C., Mieth, T. D., & Drass, K. A. (1995). The roots of prison violence: A test of the deprivation, management, and no-so-total institution models. *Crime & Delinquency*, 59(1), 197-221.
- Petersen, C.B. (1982). Doing time with the boys: An analysis of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all-male faci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women*, ed. B. Raffed Price and N. Sokoloff. New York: Clark Boardman.
- Rowan, J. (1996). Having more female officers reduces prisoner assaults on staff. *Overcrowded Times*, 7:2-3.
- Szockyj, E. (1989). Working in a man's world: Women correctional officers in an institution for me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1: 319-328.
- Trammell, R., & Rundle, M. (2015). The Inmate as the Nonperson: Examining Staff Conflict From the Inmate's Perspective. *The Prison Journal* 2015, Vol. 95(4) 472-492
- Walters, S. (1992). Attitudinal and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A study in three midwestern prison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8: 173-189.
- Zimmer, L.B. (1982). Female guards in men's prisons: Creating a role for themsel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_____ (1987). How women reshape the prison guard role. *Gender & Society* 1:415-431.
- Zupan, L. (1986).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correctional offic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4: 349-361.

【Abstract】

Male inmates, correctional officers, gender stereotypes and male inmates' stress

Kim,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inmates' gender stereotypes for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and its impact on their stress level while they are doing their time in prison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uses a set of survey data of 216 male inmates collected from prisons nationwide. The data contains information regarding male inmates' perceptions towards male and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as well as their stress level in pris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le inmates have low level of gender stereotype against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Further, this study found that none of male inmates' gender perceptions toward female officers has impact on the inmates' reported stress. Rather, perceptions toward the entire correctional officers, which include both gender officers, have influence on the inmates's stress during incarcer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male inmates consider female officers as a part of professional correctional organization without specific gender stereotype or perceptions toward female officers. It indicates that the concern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inmates and female officers may be a mere myth rather than a serious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s a barrier for expand female officers carrier opportunity in the corrections systems.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findings for preventing suicide attacks are discussed.

Key words : male inmates,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gender stereotypes, attitude towards correctional officer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 Crime Investig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